택당 이식 문학비평 연구

허 윤 진*

– 목 차 –

Ⅰ. 머리말
Ⅱ. 문학사에 대한 총체적 인식
Ⅲ. 문학과 인격의 일치에 대한 지향
Ⅳ. 맺음말

▌국문초록

본고는 관각문인이자 조선 중기 한문 사대가의 한 사람으로서 문학사적인 평가를 받아온 택당(澤堂) 이식(李植, 1584~1647)의 실제 문학비평을 구체적으로 읽음으로써 택당 문학비평의 개성을 탐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간본『택당집』과 사본『택당유고전집』에 소재하고 있으며 대상이 문학적 저작인 서발류 산문 34편을 살펴본다.

택당 이식의 문학비평은 기존의 평가와 달리 어떤 특정한 문론(文論)에 국한되기보다는, 어떤 문학이 진정한 고전적 문학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문학사를 총체적으로 종합하는 비평이라고 할 수 있다. 택당은 한 저자의 문학에 경학(經學)과 고문(古文)의 토대가 겸비되어 있는가를 비평적 가치평가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다. 이러한 객관적 비평 기준에 의거하여, 그는 당대 문학장의 논쟁, 정치적 당목(黨目), 동아시아 고전문학사와 자국문학사의 경계를 초월하였다.

또, 택당 이식의 문학비평은 문학 작품에 참여하는 저자와 비평가 모두의 인격을 표상하는 윤리학적 비평의 성격을 지닌다. 택당은 작품과 저자의 인격적 일치를 중시하며, 나아가 타인의 작품을 읽는 비평가 자신에 대한 겸허한 자기반성을 비평 내부에서 수사적으로 표현한다.

주제어 : 택당 이식,『택당집』,『택당유고전집』, 서발류(序跋類), 고전문학사, 윤리학적 비평

* 서강대학교 전인교육원 강사(hdthoreau@hanmail.net)

Ⅰ. 머리말

택당(澤堂) 이식(李植, 1584~1647)은 관각문인이자 '월상계택(月象磎澤)'으로 병칭되는 조선 중기 한문 사대가의 한 사람으로, 문학사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 그런데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 1607~1689)이 택당의 간본(刊本) 문집인 『택당집』(澤堂集)[1]을 주로 산정(刪定) 했다든가, 택당이 정치외교 엘리트로서 대내외적인 공무를 맡아 실용적인 목적을 지닌 변려문을 많이 창작했다는 점[2] 등으로 인해, 택당의 문학이 보수적이고 고루할 것이라는 편견을 갖기 쉽다. 택당의 문학사적 명망에 비해 그의 실제 문학에 관한 연구가 기대만큼 방대하지 않은 데에는 연구자들의 지적과 같이 택당 이식에 대한 이러한 '인식론적 장애물'[3]과 정치적 진보/보수의 이분법에 갇힌 문학사 담론[4] 등의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개성적인 문인이었던 백곡(栢谷) 김득신(金得臣, 1604~1684)과 같은 인물이 남긴 『종남총지』(終南叢志)의 시화(詩話)비평을 보면, 택당은 당대에 '시를 아는 사람'[知詩者], 즉 뛰어난 시 비평가로 형상화 되어 있다.[5] 택당은 당대 문학장에서 시 비평가로서 소인운사(騷人韻士)들의 깊은 신뢰를 받은

---

1) 택당 이식의 문집은 현재 총 3종의 이본(異本)이 있다. 간본(刊本) 1종인 『澤堂集』, 사본(寫本) 2종인 『澤堂遺稿全集』과 『澤堂遺稿刊餘』가 그것이다. 이 판본들은 모두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고, 간본은 한국문집총간 영인본으로, 사본은 서울대학교 규장각자료총서 영인본으로 공개되어 있다. 간본 『澤堂集』은 본집 10권, 속집 6권, 별집 18권으로 되어 있는데 본집 전체와 속집 1~4권은 택당 이식이 편집한 것이고, 속집 5~6권은 문곡(文谷) 김수항(金壽恒, 1629~689)이, 별집 18권은 우암 송시열이 편집한 것이다. 세 판본의 관계 및 차이에 대해서는 김대중, 「전환기의 지식인 택당 이식과 『澤堂遺稿全集』」, 『澤堂遺稿全集』 一,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13, 7~40쪽; 김대중, 「조선중기 지성사 연구의 새로운 방향 모색을 위하여 - 『澤堂遺稿刊餘』 해제」, 『澤堂遺稿刊餘』 一,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14, 7~39쪽; 오세현, 「규장각 소장 『澤堂集』의 간행과 다양한 이본 연구」, 『규장각』 제44집,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14, 157~189쪽 참조.

2) 외교문서를 비롯한 실용적 목적의 글쓰기는 문학적 글쓰기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택당 이식을 비롯하여 정치와 문학, 두 영역 모두에서 출세(出世)한 사대부로서 활동한 문학가들을 온당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관각(館閣) 문학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필요하다고 본다. 이런 점에서 관각 문학을 포함한 여러 장르의 산문을 대상으로 하여 조선중기의 정치외교담론을 재구성하고 있는 다음의 논의는 시사점을 준다. 김대중, 「택당 이식의 명청교체기 자타인식」, 『서강인문논총』 제45집,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6, 151~193쪽 참조. 택당 문학에서 변려문이 가지는 중요성에 대한 다음의 논의 역시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한우, 「택당 이식 문학 연구」, 대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1996, 126~144쪽.

3) 김대중, 앞의 논문(2013), 7쪽.

4) 김대중, 위의 논문, 7쪽; 이한우, 앞의 논문, 4쪽.

5) 金得臣, 『終南叢志』, 洪萬鍾 編, 『詩話叢林』 冬, 아세아문화사 영인본, 1973, 357~386쪽 참조; 허윤진, 「백곡 김득신 시 비평 연구」, 『한국시가문화연구』 제42집, 한국시가문화학회, 2018, 244~246쪽.

바 있다.

시론(詩論), 시 비평을 포함한 택당의 문학비평에 대한 연구는 그 대상을 크게 두 갈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택당의 비평은 대체로 그가 자손들을 위해 남긴 훈시(訓示)적인 산문들을 중심으로 해서 논의된 경우가 많았다. 『택당집』에 소재한 「대필(代筆)해서 자식 아이에게 보여 준 글」(示兒代筆), 「글을 지을 때 모범으로 삼아야 할 것들」(作文模範), 「시(詩)를 공부할 때의 준칙(準則)」(學詩準的), 「자손들에게 교시(敎示)한 글」(示兒孫等) 등의 산문이 자주 언급된 작품들이다.[6] 이 산문들에서 택당은 시를 비롯한 동양고전을 익히고 그를 토대로 창작하는 방법론을 개진하고 있다. 이 산문들은 택당을 당송고문가(唐宋古文家)로 규정하는 근거가 되어 왔다.

다음으로는 주로 동아시아 고전을 대상으로 한 택당의 비평에 대한 연구가 있다. 택당의 문집에 포함되지 않은 독립적인 저작인 『찬주두시택풍당비해』(纂註杜詩澤風堂批解)[7]는 택당의 두보 시 비평으로, 택당이 만년(晩年)에 20년에 걸쳐 두보의 시에 대한 역대 주해를 모으고 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덧붙인 대작(大作)이다. 또, 간본 문집에는 수록되지 않은 『대가의선비평』(大家意選批評)과 『한서수평』(漢書手評)도 택당의 중요한 비평 작품이다. 이 두 작품은 『택당유고간여』에 실려 있다. 『대가의선비평』은 택당이 모곤(茅坤)의 『당송팔대가문초』(唐宋八大家文鈔)를 저본으로 하여 선발한 42편의 산문에 대한 그의 평비(評批)만을 추린 텍스트이다.[8] 『한서수평』 역시 『한서』(漢書)에 관한 택당의 평어를 추린 것으로 보인다.[9] 『찬주택풍당두시비해』는 동아시아 고전시의 전범(典範)에 관한 비평이며, 『대가의선비평』과 『한서수평』은 동아시아 고전들에 관한 비평이다. 택당이 평생 가깝게 교류한 벗인 조문수

6) 장원철, 「택당 이식의 문학론 재고」, 『어문논총』 제29집, 안암어문학회, 1990, 157~173쪽; 이한우, 앞의 논문, 35~38쪽; 윤지훈, 「택당 이식의 『大家意選批評』과 산문창작의 실제」, 『한문학논집』 제29집, 근역한문학회, 2009, 102~105쪽; 김덕수, 「『大家意選批評』 연구」, 『정신문화연구』 제33권 3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10, 205~207쪽; 김현주, 「택당 이식의 시 연구」, 단국대학교 한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11, 12~13쪽.

7) 이한우, 위의 논문, 19쪽, 145~154쪽; 안대회, 『한국 한시의 분석과 시각』,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0, 314~349쪽; 김덕수, 「택당 이식의 한시론과 『澤風堂批解』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7, 94~209쪽 참조.

8) 윤지훈, 앞의 논문, 99~131쪽; 김덕수, 앞의 논문(2010), 203~228쪽; 김대중, 앞의 논문(2014), 26~28쪽.

9) 김대중, 위의 논문, 26~28쪽.

(曺文秀, 1590~1647)의 『설정시집』(雪汀詩集) 텍스트 자체에 남긴 비평[10]도 이 세 작품과 형식을 같이 한다.

이처럼 기존에 활발히 연구된 택당의 문학비평 작품들은 대개 동아시아 고전문학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삼은 것이었다. 이런 점에서 택당 이식이 타인의 문집에 부친 서발류(序跋類) 산문은 비평 창작의 대상과 맥락이 자국문학사와 결부된다는 점에서 국문학 연구에서 보다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대상이라고 생각된다. 또, 소략하게 대비하자면 서발류 산문 외의 택당 비평은 대개 텍스트 자체에 대한 분석적인 비평이라면 서발류 산문은 한 저자의 저작을 비평 대상(object)으로 둔 작가론이자 작품집 해설로서 종합적인 성격을 가진다.

서발류 산문은 청탁에 의해서 쓰이고, 청탁 경위나 문집 편찬 과정 등에 관한 기사(記事)와 저자에 대한 관습적인 칭양(稱揚)으로 이루어지기 쉽다. 이런 사회적 성격으로 인해 서발류 산문은 비평가의 개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뛰어난 비평가라면 사회적인 계기가 주는 보이지 않는 압박 속에서도 자신 나름의 비평적 가치 평가의 기준을 견지하게 마련이다. 서발류 산문은 그것이 지닐 수 있는 상투적 속성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대상 작품이나 저자라는 변수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 비평가의 일관된 문학론과 문체 양식을 파악하는 데에 효과적인 장르일 수 있다.

문학비평으로서의 택당 서발류 산문[11]은 주요 작품이 간본에 대개 수록되어 있다. 『택당유고간여』에는 서발류가 없고, 『택당집』과 『택당유고전집』에만 수록되어 있다. 문학비평으로서의 택당 서발류 작품들은 간본 『택당집』을 기준으로는 序, 引, 跋, 도합 20편으로 볼 수 있다. 『택당유고전집』을 기준으로는 序, 引, 跋, 도합 34편으로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택당유고전집』에 소재한 34편의 비평 산문을 모두 검토하였으나, 서인 계열 문인들, 특히 송시열이 편향된 방식으로 작품을 산정했을 것이라는 선입견과 달리, 비평의 주제와 내용, 수준 면에서 간본에 소재한 20편

10) 김덕수, 「택당 이식의 한시 비평 양상 - 『설정시집』 소재 시비평을 중심으로」, 『한국한시연구』 제9집, 한국한시학회, 2001, 236~257쪽 참조.

11) 택당 이식의 산문 작품들 중 서발류(序跋類), 증서류(贈序類) 산문에 대한 기존 논의는 의론과 서정이라는 산문 장르의 속성을 중심적으로 다루고, 이 산문들이 가지는 문학비평적 특성에 대해서는 논의한 바가 드물다. 권진옥, 「택당 이식의 서발류 · 증서류 산문 일고」, 『한자한문연구』 제5집, 고려대학교 한자한문연구소, 2009, 223~252쪽.

의 비평이 충분히 대표성을 가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택당 이식의 서발류 산문으로 된 문학비평 34편을 고려하되, 논의는 대체로 간본『택당집』에 소재한 20편의 작품에 대해 이루어질 것이다.[12]

Ⅱ. 문학사에 대한 총체적 인식

택당 이식은 문학의 기준으로 당송시(唐宋詩)와 당송고문(唐宋古文)을 중시했다고 논의되어 왔다. 그의 당대는 진한고문(秦漢古文)파, 즉 의고론자들이 우세한 시대였지만 그는 시대의 '주류'적인 문학론과 무관하게 당송고문론자의 입장을 취했던 일종의 선구자였다는 것이다.[13] 그런데 택당 이식의 서발류 산문을 읽어보면 그는 특정 시대나 사조에 국한되기보다는 문학사를 총체적으로 인식하는 입장을 취함을 알 수 있다.

택당이 58세이던 1641년[辛巳初冬]에 창작한「『현주유고』 서문」(玄洲遺稿序)은 조찬한(趙纘韓, 1572~1631)의 유고(遺稿)에 관한 비평문이다.

> 아조(我朝)의 경우는 경서(經書)의 가르침을 돈독히 숭상하여 문사(文詞)가 온유하고 점잖기만 하였는데, 한소(韓蘇)의 글도 근래에 들어와서야 모범으로 삼게 되었을 뿐, 진(秦)과 한대(漢代) 제가(諸家)의 굉려(宏麗)한 문체는 아직까지도 갖추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또한 현실이다. (…) 공의 학문은 그야말로 옛것을 탐색해 보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문장 역시 옛것을 구비하지 않은 것이 있지 않았는데, 위로 양한(兩漢)을 발로 밟고 아래로 육조(六朝)에 기대면서도, 공자가 말한 '사달(辭達)'의 취지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다.
>
> -「『현주유고』 서문」(玄洲遺稿序) 부분[14]

---

12)『택당집』과『택당유고전집』에 수록된 서발류 산문들은 그 수량에도 차이가 있지만, 편집 순서에도 차이가 있다.『택당유고전집』에는 작품들이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배열되어 있어서 작품의 선후 관계를 파악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작품 안에 창작 시기를 특정할 수 있는 표지가 없는 경우에도 대략적인 시간 범위를 설정할 수가 있다.

13) 강명관,「택당 이식 산문비평의 재검토」,『한문학보』 제8집, 우리한문학회, 2003, 161쪽; 윤지훈, 앞의 논문, 102~106쪽.

14) "國朝敦尙經訓, 文詞爾雅, 韓、蘇之文以近爲範, 而秦、漢諸家宏麗之體猶未備也.(…)其學於古無所不蒐, 故其文於古無所不備, 上蹈兩漢, 下籍六朝, 而不失孔氏'辭達'之旨." 李植,「玄洲遺稿序」,『澤堂集』 別集 卷5, 한국문집총간 88, 민족문화추진회, 1992, 338쪽; 李植, 이상현 역,『국역 택당집』 Ⅳ, 민족문화추진회, 1997, 212~213쪽. 이후에 작품을 인용할 때는 혼동을 피하기 위해 원전의 영인본과 국역본의 서지사항을 모두 밝히기로 한다. 본고에 제시된 번역문은『국역 택당집』의 번역

택당의『현주유고』비평에 따르면, 조선에서 경학(經學)은 어느 정도 구비되었지만, 고문(古文)은 충분히 전개되지 못했다. 그래서 당송(唐宋)의 대표적 대가들인 한유(韓愈)와 소식(蘇軾)의 글조차도 근래에야 문학적인 정전이 되었으며, 진한(秦漢)의 다양한 문체도 충분히 구현된 바가 없는 것이다. 택당은 진한고문(秦漢古文)과 당송고문(唐宋古文) 중에서 어느 한 쪽을 '진정한 고전'[眞古]으로 규정하기보다는, 고문이 자국문학사에서 제대로 구현, 성취된 적이 없다는 현실 자체를 객관적으로 조망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택당 이식은『현주유고』의 저자를 높이 평가한다. 그 저자가 기본적으로 공자의 담박한 언어관/문장관에 충실하면서도, 양한(兩漢)과 육조(六朝)의 문학적 장점을 두루 섭렵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택당이 저자의 문학적 성취를 판단하는 비평적 기준은 경학(經學)과 고문(古文)의 겸비인 것이다.

이어지는 다음의 인용문에서 택당은 비평대상이 되는 저작에 어떻게 다양한 문학사적 영향이 총체적으로 실현되었는지를 상술하고 있다.

> 내가 새삼 그 유고를 접하고 읽어 볼 때마다 새삼 위대하다는 느낌을 받곤 하는데, 이를 대략적으로 음미해 보자면 소부(騷賦)의 경우는 초・한(楚漢)의 시대와 보조(步調)를 같이하고, 산문과 잡저(雜著)의 경우는 좌(左)・마(馬)의 법도를 본받았으며, 변려체(駢儷體)의 글은 서(徐)・유(庾)의 성조(聲調)를 깊이 터득했고, 장편과 광운(廣韻)의 시는 두(杜)・한(韓)과 함께 치달리고도 남음이 있다고 하겠다. 다만 근체시(近體詩)의 경우는 그 절구(絶句)와 율시(律詩)에 그다지 공력을 쏟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도 역시 모두가 기발하여 자득(自得)의 경지를 보여 주고 있으니, 결코 송대(宋代)의 격조(格調)에는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든다.
>
> -「『현주유고』서문」부분[15]

산문과 잡저의 경우를 먼저 언급해 두자면, 위의 부분에서 택당이 진한(秦漢)의 대표적인 저작들인『좌전』(左傳)과『사기』(史記)를 정전으로 보고 중

을 따른 것이다.

15) "余每讀而偉之, 就評其略, 騷賦則步驟楚、漢, 散文雜著則格法『左』、馬, 偶儷之篇則深得徐、庾聲, 律詩大篇廣韻則杜、韓馳騁之餘也. 惟近體律絶不甚著工, 而亦皆奇拔自得, 不落宋調." 李植,「玄洲遺稿序」,『澤堂集』別集 卷5, 한국문집총간 88, 민족문화추진회, 1992, 338쪽; 李植, 이상현 역,『국역 택당집』Ⅳ, 민족문화추진회, 1997, 214쪽.

시하고 있음이 확연하다. 그러므로 택당이 당송고문만을 특히 강조했다는 논의는 그가 당송고문이나 진한고문 중 어느 한 쪽에 국한되지 않고 동양고전을 두루 강조했다는 논의로 수정, 보완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16]

택당은 『현주유고』를 소부(騷賦), 변려문(駢儷文), 장시(長詩), 근체시(近體詩) 등 다양한 장르의 문학적 글쓰기에 있어 동아시아 고전문학사의 여러 시대를 관통하는 다양한 문예사조와 문체를 종합적으로 구현한 저작으로 평가하고 있다. 시의 경우, 당(唐) 이후의 근체시를 고체시에 비해 우월한 것으로 가정하지 않고, 저자가 구사한 시체(詩體)가 그 고유한 맥락에서 충분히 성취되었는가 하는 미학적인 수준만을 문제 삼고 있다. 즉, 택당에게 있어서 당송시(唐宋詩)는 시 작품의 수준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조건이 아닌 것이다. 조찬한의 『현주유고』는 근체시의 경우 당시(唐詩)의 완벽한 형식미까지는 도달하지 못했으나 송시(宋詩)의 격조는 어느 정도 성취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택당은 계곡(谿谷) 장유(張維, 1587~1638)의 『계곡집』을 경학(經學)과 고문(古文)의 종합이라는 측면에서 놀라운 종합과 성취를 이룬 것으로 평가한다.

> 공의 학문을 살펴보건대, 경서의 정미(精微)한 이치를 깊이 꿰뚫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제자백가(諸子百家)에도 두루 통하였으며, 상하 좌우 어느 곳에도 공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이 정화(精華)를 온통 한몸에 거두어 모으고 있었다. 이렇듯 온축된 것이 엄청나게 많았건마는, 생각이 법도를 뛰어넘거나 기운이 조화를 잃는 법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 내놓으려고 마음만 먹으면 휘두르는 대로 문장이 이루어지면서 어디로 가나 본원(本源)과 맞닿는 경지를 보여 주곤 하였는데, 그 도리는 공맹(孔孟)에 입각한 것이었고 그 소재(素材)는 진한(秦漢)의 것이었으며 모범으로 삼은 것은 한유(韓愈)나 구양수(歐陽脩) 등 대가(大家)의 작품이었다.
>
> 그리하여 소부(騷賦)와 시율(詩律)에 이르기까지 옛사람의 심오한 경지를 각각 한 곳에 거두어 모으면서도, 세속에서 보여 주는 것처럼 오로지 한 가지 반찬만 좋아하거나 혹은 음식이 있는 대로 밥상에 늘어놓는 것과 같은 병통이 전혀 없이, 순수하게 자기만의 독특한 문학 세계를 전개하였으니, 아, 공이야말로 이 문예(文藝)에 있어서 더할 수 없는 훌륭함과 아름다움을 구비하여 아무런 유감이 없게 되었다고 말할 만하다.
>
> -「『계곡집』 서문」(谿谷集序) 부분[17]

16) 김덕수, 앞의 논문(2010), 207~209쪽; 김우정, 「택당 이식과 17세기 초 문단」, 『동방한문학』 제46집, 동방한문학회, 2011, 119~142쪽.

17) "其爲學精邃經書, 而淹貫諸子史, 上規下逮, 聚精擷英. 所蓄富矣, 而思不踰格, 氣不累調, 其出之也,

위의 부분에서 계곡 장유가 문학사적인 성취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조찬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충실한 학문적 연구 덕분으로 평가된다. 그의 학문은 경서를 세밀하고[精] 깊이 있게[邃] 통달한 것으로 운위된다. 이는 피상적인 박학과는 다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계곡은 사방으로 막힘이 없고, 대상의 본질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었다. 택당은 계곡의 학문이 도리(道理)의 측면에서는 유가[孔孟], 소재의 측면에서는 진한(秦漢), 문장 모범의 측면에서는 당송(唐宋)대가를 따르는 것이라고 명쾌하게 규정하고 있다. 유가(儒家)의 학문과 진한/당송고문이 서로 다른 범주에서 발현되면서도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이는 동아시아 고전의 맥락에서 이룰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삼위일체의 형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어서 택당은 산문적 문체에서 운문적 문체에 이르기까지, 어떤 하나의 대상만을 절대적인 것으로 고수하는 것을 일종의 병통으로 간주한다. 여기에서 계곡 장유는 사적 취향을 편벽되이 절대화 하지 않고 학문과 문학의 고전적 통합을 이룸으로써 역설적이게도 개성을 추구한다는 상찬을 받고 있다. 앞에서도 잠시 언급했듯, 학문에 대한 정밀한 연구를 통해 객관화 된 문학을 중시하는 것은 택당의 중요한 비평적 기준이다. 택당은 이 기준을 가지고 자신의 동시대인이자 조선 중기 한문학사의 중요한 저자인 계곡에 대해 비평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

「『계곡집』 서문」에서 택당은 취향의 편벽됨에 대해 경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편벽됨에 대한 택당의 지적은 흥미롭게도 정치적인 당목(黨目)의 문제와도 결부될 수 있다. 『택당집』은 서인의 영수 우암 송시열에 의해서 산정되었는데, 우암은 택당의 막내아들인 이단하(李端夏, 1625~1689)의 스승이었다. 이러한 전기적 사실로 인해 택당 이식은 정치적・학문적으로 서인의 입장에 국한될 것이라는 선입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택당은 평생 당목을 경계했고, 실제로 택당의 문학비평을 보면 학봉(鶴峯) 김성일(金誠一, 1538~1593), 지봉(芝峯) 이수광(李睟光, 1563~1628)과 같은 동인/남인 계열 저자들

肆筆成章, 左右逢源, 其理則孔、孟, 其材則秦、漢, 其模範則韓、歐大家, 以至騷賦詩律各臻古人閫奥, 絶無世俗奇偏飣餖之病, 粹然自成一家語. 於乎, 公之於斯藝可謂盡善具美而無遺憾矣." 李植, 「磻谷集序」, 『澤堂集』 別集 卷5, 한국문집총간 88, 민족문화추진회, 1992, 339쪽; 李植, 이상현 역, 『국역 택당집』 Ⅳ, 민족문화추진회, 1997, 217~218쪽.

에 대한 비평도 포함되어 있다.[18]

지봉 이수광은 주지의 사실이듯 남인 학맥에서 중요한 위상을 지닌 인물이다. 택당은 지봉 선생 생전에 문집에 부치는 글을 미리 청탁받은 적이 있었다. 그러다가 지봉의 사후에 그 후손들의 청탁으로 『지봉집』을 위한 발문을 쓰게 된 것이다.

>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건대, 사람의 기예가 아무리 교묘한 경지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왼손으로 네모를 그리면서 오른손으로 원을 그릴 수는 없으리라고 여겨진다. 고금(古今)의 문장가들을 보더라도 여러 가지 체재(體裁)를 두루 익힌 사람들이 참으로 많긴 하였지만, 산문에 능한 자는 시를 지을 때에도 산문과 비슷하게 되고, 오로지 시에만 공력을 쏟은 이는 산문 역시 시와 비슷하게 되기 일쑤였다. 그러니 동공이곡(同工異曲)하게 되는 것이야말로 어찌 더욱 어려운 일이라고 해야 하지 않겠는가.
>
> 그런데 지금 선생으로 말하면, 축적된 학문이 이미 풍부한 데다 문체(文體) 역시 모두 완전히 갖추어 울연(蔚然)히 한 시대의 대가(大家)로 군림하게 된 터이다. 그리하여 시(詩)의 분야에 있어서도 간박(簡朴) 고아(古雅)하고 더할 수 없이 맑기만 하여 삼당(三唐)의 세계를 출입하면서, 비록 누운(累韻) 첩편(疊篇)이라도 끝내 격조(格調)를 잃지 않고 있으니, 이는 참으로 옛사람들 중에서도 보기 드문 일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된 것은 그야말로 염정(恬靜)한 자세로 연구에 매진하신 결과가 아니겠는가. 뒷날 이 문집을 읽는 이들이 행여 나의 이 말을 참고로 하여 찾아본다면, 이 역시 사모하여 따르는 데에 하나의 도움이 되리라고 여겨진다.
>
> -「『지봉집』 발문」(芝峯集跋) 부분[19]

택당은 장르론의 관점에서 시(詩)와 문(文)을 대비하면서, 이 두 장르에 각각, 동시에 능통하기란 어려운 일임을 언급하고 있다. 아니, 오히려 어떤 체재에서의 성취는 다른 체재의 온전한 실현을 막는 일종의 장애물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글쓰기의 상반된 양식을 섭렵하는 일을 동그라미[圓] 그리기와 네

---

18) 뿐만 아니라 학봉 김성일에 대한 비평문은 저자 택당은 막상 편집 과정에서 제외한 것이었지만 우암 송시열이 별집에 수록시킨 작품이기도 하다. 조선시대에 관해 연구할 때 문학작품에 정치 담론을 외삽적으로 과도하게 적용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재고가 필요할 듯하다.

19) "抑惟念, 人雖至巧, 不能左畫方而右畫圓. 古今文章家固多兼包衆體矣, 然長於文者, 詩或類文, 專於詩者, 文亦類詩. 豈非同工異曲爲尤難哉? 今先生績學旣富, 文體咸備, 蔚然爲一代大家, 而乃其詩簡古淸絶, 出入三唐, 雖累韻疊篇, 而終不失調格, 此誠古人之所希有者. 倘非恬靜研究之效歟? 後之讀是集者, 幸以余言求之, 則庶爲模楷之一助云." 李植,「芝峯集跋」,『澤堂集』卷9, 한국문집총간 88, 민족문화추진회, 1992, 158쪽; 李植, 이상현 역,『국역 택당집』II, 민족문화추진회, 1996, 193~194쪽.

모[方] 그리기로 비유하고 있는 택당의 수사법은 명쾌하다. 그는 지봉 이수광을 '왼손으로는 네모를, 오른손으로는 동그라미를 그릴 수 있는' 저자로 보고 있는 듯하다.

지봉 이수광이 성취한 것으로 본 '시문(詩文)의 겸비'는 앞선 다른 저자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학문과 문학의 조화에서 비롯된 것이다. 택당은 시 비평에서 『시경』(詩經)의 기상을 연상케 하는 '간박함[簡]', '고아함[古]', '맑음[淸]' 등과 같은 평어를 중요한 가치 기준으로 사용하곤 한다. 그는 그런 긍정적인 의미를 지닌 평어들을 「『지봉집』 발문」에서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택당은 이 글에서도 문학의 이상적 체현을 저자의 도저한 학문 연구에 근간을 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처럼 택당이 적극적으로 비평하는 작품은 저자의 정치사회적 입장이나, 저자-비평가 사이의 친소(親疏) 관계와 같은 외삽적인 요인이 개입된 작품이 아니다. 택당에게 있어 문학사적인 의미를 가지는 작품은 '학문 연구에 기반한 고전주의적 문학'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택당이 객관적인 비평 기준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계곡과 지봉처럼 밀접한 연관성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 듯한 저자들도 동일한 범주에서 논의될 수가 있는 것이다. 요컨대 택당은 저자들의 정치적 입장이나 위상의 차이를 문학적 성취의 유사성을 통해 초월하고 있다.

숙부인 동악(東岳) 이안눌(李安訥, 1571~1637)의 문집인 『동악집』(東岳集)에 부친 택당의 발문은 택당 문학비평의 이러한 객관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동아시아 문학사와 자국문학사에 대한 대화적 인식 또한 여실히 보여준다.

> 선생이 시문을 통해 인연을 맺은 인사들의 면모를 보면 모두가 한 시대를 주름잡는 사람들뿐이었는데, 선생의 문장에 대한 평가가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중에서도 내가 일찍이 귀동냥한 몇 마디 말을 소개해 보려고 한다.
>
> 백사(白沙) 이 상공(李相公)은 선생의 시를 칭찬하기를 "시 세계의 지평(地平)을 한 단계 더 올려 드높이면서 그 기염(氣焰)이 하늘을 불태워 붉게 물들였으니, 유장(悠長)하게 퍼져 나가는 그 정시지음(正始之音)이야말로 원백(元白) 이하의 무리들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다."고 하였으며, 창주 차공 만리 운로(滄洲車公萬里雲輅)는 "한퇴지(韓退之)의 경계를 벗어나 두자미(杜子美)의 경지로 들어갔으니, 빼어나게 웅혼한 기상과 굉대(宏大)하고 화려한 그 시문을 바라보노라면 마치 구름 한 점 없는 형산(衡山)과 물결이 일지 않는 동정호(洞庭湖)를 대하는 듯한 느

낌이 든다."고 하였다.

그런가 하면 구원 이공 입지 춘원(九畹李公立之春元)은 항상 사적으로 나에게 말하기를 "자민(子敏)이 젊었을 때부터 여장(汝章)과 이름을 나란히 하기는 하였지만, 자민의 경우는 학문을 쌓은 그 기초가 튼튼한 위에 둔중(鈍重)함으로부터 예리(銳利)함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의 시가 황종 대려(黃鍾大呂)와 같기만 하니, 지금 보건대 여장은 그의 적수가 되지 못한다고 하겠다." 하였다. 그리고 선생 자신도 언젠가 농담 섞인 말로 이야기하기를 "만약 여러 사람들의 시를 삼국 시대의 인재들과 비교해 본다면, 나는 사마씨(司馬氏)가 될 것이다."고 한 적이 있었는데, 죽음(竹陰) 조이숙(趙怡叔)도 그 말이 참으로 옳다고 동의하였다.

- 「『동악집』 발문」(東岳集跋) 부분[20]

위에 인용한 「『동악집』 발문」의 부분에서 택당은 동악이 자신의 숙부이기에, 그에 대해 직접 비평적 평가를 내리는 것은 오히려 비평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보는 듯하다. 그래서 택당은 이 글에서 문집 편찬 경위를 기사(記事)의 측면에서 주로 서술하고, 저자와 문집에 대한 직접적인 평은 되도록 삼가는 듯하다. 그는 자신 대신 자국문학사의 다른 저자들이 동악에 대해서 남긴 비평적 언술을 제시하는 식으로 자신의 실제 비평을 대신하고 있다.

택당은 동악에 관한 백사(白沙) 이항복(李恒福, 1556~1618), 창주(滄洲) 차운로(車雲輅, 1559~?), 구원(九畹) 이춘원(李春元, 1571~1634) 등의 평을 열거하고 있다. 백사에 따르면 동악의 시는 신악부(新樂府)운동을 주도했던 당(唐)의 시인 원진(元稹)과 백거이(白居易)의 지평에 도달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백사가 쓰고 있는 비평적 수사는 동악 문학의 힘차고 웅혼한 기상을 엿보게 한다. 창주는 동악의 문학을 한유를 넘어 두보의 차원으로 격상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때에도 역시 동악의 시문은 중국의 산수(山水)인 형산(衡山)과 동정호(洞庭湖)처럼 아름답고도 장대한 풍경을 지닌 것으로 칭송된다.

한편 구원 이춘원은 동악 이안눌을 개성적인 시로 명망을 떨친 석주(石洲)

20) "先生文會傾一世, 雕龍之評不無異同, 以余所耳剽者. 白沙李相公稱其詩: '拓基軒地, 噓焰薰天, 颯颯乎正始之音, 元、白以下不論也.' 滄洲車公萬里雲輅稱: '其出韓入杜, 雄拔鉅麗, 望之如衡岳無雲, 洞庭不波.' 九畹李公立之春元常私謂植曰: '子敏少與汝章齊名, 然子敏積學築址由鈍而銳, 其詩如黃鍾大呂, 今非汝章倫輩也.' 先生亦嘗戲言: '若以諸君詩比之三國人才, 則吾爲司馬氏矣.' 竹陰趙怡叔良以爲然." 李植, 「東岳集跋」, 『澤堂集』 別集 卷5, 한국문집총간 88, 민족문화추진회, 1992, 342쪽; 李植, 이상현 역, 『국역 택당집』 IV, 민족문화추진회, 1997, 229~230쪽.

권필(權韠, 1569~1612)과 대비한다. 위의 인용문에서 자민(子敏)은 이안눌의 자(字)이고, 여장(汝章)은 권필의 자(字)이다. 이안눌의 문학이 권필의 문학보다 궁극적으로 더 뛰어나게 된 것은, 이안눌이 학문의 내실 있는 기초 위에서 문학을 발전시켰기 때문이라는 구원의 평은 위에서 살펴본 택당의 학문-문학 일체론과 궤를 같이 한다.

백사와 창주가 동악을 동아시아 고전문학사의 맥락에서 비평하는 것과 달리, 구원은 그를 자국문학사의 맥락에서 비평하고 있다. 요컨대 택당은 자국문학사의 중요 저자-비평가들의 비평을 인용함으로써, 자국문학사의 맥락 속에서 동아시아 고전문학사가 인용되고 소환되는 대화적이고 중층적인 비평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동악집』 발문」의 말미에서 택당은 이미 다른 문헌에 언급되어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군더더기[贅]가 될 것을 우려하여 부연 설명을 피한다. 택당이 자신의 비평이 지니는 가치나 기능을 과장해서 생각하지 않는 이러한 의식은 택당 문학비평의 중요한 윤리적・수사학적 특성으로 나타난다. 다음 장에서는 택당 문학비평의 이와 같은 인격적 특징에 대해서 논해보고자 한다.

Ⅲ. 문학과 인격의 일치에 대한 지향

택당을 비롯한 조선시대 문인들의 문학은 성리학적인 문이재도론(文以載道論)의 관점에서 많은 논의가 되어 왔다. 그런데 택당의 문학비평은 구체적으로 읽다보면 그의 궁극적인 문학적 지향이 앞장에서 살펴본 '理=文'의 일치를 넘어서 '理=文=人'의 지평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것을 '도문일치'와 이어지는 '문학과 인격의 일치' 문제로 가정하여 논의해 보고자 한다. 이것은 사실 '수신(修身)'에서부터 '평천하(平天下)'에 까지 점진적으로 이르는 유교적 윤리학의 성취와 결부된 전통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택당 문학비평에서 문학을 하는 인간의 인격(윤리) 문제는 비평의 대상이 되는 저자와, 비평의 주체가 되는 비평가에게 동시에 적용된다. 우선 택당이 문학에 나타나는 저자의 인격적 자질, 문학과 저자의 인격적 일치를 어떻게 논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택당이 두 편의 비평문을 쓴 저자인 촌은(村隱) 유희경(劉希慶, 1545~1636)은 택당의 당대에 백대붕(白大鵬, ?~1592)과 더불어 문명(文名)이 있었던 여항시인이다. 택당은 34세이던 1617년[萬曆丁巳孟夏下浣]에 창작한 「유생『침류대시권』 후서」(劉生枕流臺詩卷後序)에서 유희경 노인의 인격적 아름다움에 대해서 비평한다.

> 유수가 그 맑은 재질을 온축(蘊蓄)한 위에 쾌적한 물가 나무숲 사이를 소요하며 종횡으로 토해 놓은 시문들이 마치 보석 가게처럼 찬연하기만 하니, 이 글들이야말로 그의 이름과 더불어 영원히 썩지 않을 것인데, 내가 또 군더더기 말을 덧붙일 것이 뭐가 있겠는가. 다만 내가 뒤늦게 태어나 성세(盛世)의 가르침을 받을 기회가 없었던 아쉬움 속에서도 그나마 유수를 만날 수 있게 된 것을 다행으로 여긴다는 뜻을 서술하고자 할 따름인데, 뒷날 마음이 고독한 선비가 이 글을 읽는다면 어찌 또 더불어 탄식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
> -「유생『침류대시권』 후서」(劉生枕流臺詩卷後序) 부분[21]

택당은 사대부 엘리트로서 촌은을 어떤 계층적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는다. 집 근처 시냇가 물에 쌓은 대인 침류대에 관련된 시들을 모은 시집을 비평하면서, 택당은 자연과 시의 미학적 일치뿐만 아니라, 자연과 일치된 그 시와 또 완벽히 일치해 있는 촌은의 성정(性情)을 읽어낸다. 이는 택당의 문학비평이 텍스트 너머의 저자에 대한 깊이 있는 인격적 통찰로 나아감을 입증해 준다. 자연에 발현되어 있는 이치와, 그 이치를 구현한 시, 그리고 그 주체인 저자의 삼위일체는 이미 완벽하기 때문에, 택당은 자신의 비평이 군더더기[贅]라고 겸허하게 말할 뿐이다.

11년 후, 45세가 되던 1628년[戊辰臘日]에 촌은의 시집에 부친 「촌은 유희경 시집에 관한 짧은 글」(村隱劉希慶詩集小引)에서 택당은 시와 저자의 인격성이 얼마나 긴밀한 상관관계를 이루고 있는지를 논한다.

> 나는 일찍이 '시는 본성에 뿌리박고 있는 만큼 꼭 책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

21) "(…)其於劉才淑之蘊, 水樹之適, 縱橫敷列, 燦若寶肆, 斯文與叟名當不朽, 余何用贅一辭? 特敍余求益之緩, 而以猶及見叟爲幸, 後有幽介之士, 盍相爲嘆之." 李植, 「劉生枕流臺詩卷後序」, 『澤堂集』 別集 卷5, 한국문집총간 88, 민족문화추진회, 1992, 335쪽; 李植, 이상현 역, 『국역 택당집』 Ⅳ, 민족문화추진회, 1997, 201쪽.

이 아니니, 요컨대 그 정수(精粹)를 온축(蘊蓄)해 두고서 묘하게 표현해 내기만 하면 될 뿐이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다.

가령 유옹(劉翁)으로 말하면, 여정(閭井)에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니, 지금 박사(博士)라든가 유생(儒生)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언제 한 번이라도 마음껏 송습(誦習)을 하고 글 짓는 공부에 매진해 본 적이 있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그들을 능가하는 점이 있게 되었으니, 그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단지 청허(淸虛)하고 과욕(寡欲)하여 흉중에 더러운 찌꺼기가 남아 있지 않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유옹은 일생 동안 유명한 산수(山水)를 왕래하면서 틈만 있으면 초석(草石)과 어조(魚鳥)를 완상(玩賞)하였으며, 간간이 종장(宗匠)과 재사(才士)며 일민(逸民)과 석사(釋士)를 접하면서 절차탁마(切磋琢磨)를 하였는데, 이러한 일을 어려서부터 만년에 이르도록 일관되게 계속해 왔기 때문에, 가슴속에 온축된 정영(精英)이 무가내하로 자연히 솟아나오게 된 것이었다.

-「촌은 유희경 시집에 관한 짧은 글」(村隱劉希慶詩集小引) 부분[22]

비평은 대상 저자와 작품에 대한 존중을 전제로 하나, 이런 전제를 실천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택당은 본인이 사대부 계층이라고 해서 시에 관한 문학사적인 연구를 모든 시인에게 '강요'하지 않는다. 대신 그는 시가 성정에 근거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여항에 살기에 시문학 연구에 매진할 수 없는 저자 촌은의 입장을 이해해 본다. 촌은의 성정은 '청허(淸虛)'나 '과욕(寡慾)'과 같은 비움과 고결성의 평어를 통해 형상화 된다. 촌은이 초석(草石)과 어조(魚鳥)를 자연 속에서 완상하며 천리(天理)와 하나가 되는 모습은, 일견 『시경』에 대한 공자의 전통적인 가르침을 실천하는 듯 보이기도 한다.

택당이 촌은 유희경에 관해 두 편의 비평을 쓰고, 그의 시를 상찬한 것은 사대부 계층의 정치적인 '호혜' 의식과는 완전히 무관한 것이었다. 택당은 문학비평이 문학과 일치된 인격적 저자에 대한 이해로 나아감을 인식했다고 본다. 그리고 유교적 윤리학의 기준에서 삿됨이 없는 천리(天理)의 상태와 결부된 청아하고 고결한 저자들의 문학을 의미 있게 평가한 것이다.

저자의 인격적 기품과 뜻은 그에게 환란이 닥쳐왔을 때 그 실상과 진가가

22) "余嘗謂: '詩本諸性, 學不必書, 要在蓄其精按其妙而已.' 如翁閭井寒窶人, 曷嘗侈誦習勤瑣, 如今經生學子爲也? 而所得有過之, 無他焉, 直以其淸虛寡欲, 滓礦不留胸中. 加以一生往來名山水, 動有草石魚鳥之玩, 間接宗工才士逸民釋士磨礱浸涵, 自幼至耋如一日, 故其精英之蓄, 自有不可掩者." 李植,「村隱劉希慶詩集小引」,『澤堂集』卷9, 한국문집총간 88, 민족문화추진회, 1992, 155쪽; 李植, 이상현 역,『국역 택당집』II, 민족문화추진회, 1996, 185쪽.

드러난다 할 수 있다. 택당은 36세이던 1619년[萬曆己未孟夏上澣] 처남인 덕유(德裕) 심안세(沈安世, 1598~1616)의 유고에 대한 비평을 한다. 그는 자신의 처가인 청송 심씨 가문이 정치적인 격변에 휘말려 점차 쇠락해 감을 애도한다. 그리고 정치적 불운 속에서도 기품을 잃지 않았던 심안세의 고고한 뜻을 상찬한다. 자연스럽게 『초사』(楚辭) ≪이소≫(離騷)에 나타나는 굴원의 고결한 기상이 인유된다.

> 그 사지(詞旨)가 곤액(困厄) 가운데에서 나왔으면서도 분개하며 오만을 떨거나 비웃고 불만스러워 하는 기색이 전혀 없이 청월(淸越)하면서도 완곡(婉曲)하여, 팔극(八極)을 부유(浮游)하는 ≪이소≫(離騷)의 뜻이 있으니, 이를 통해서도 그의 인물 됨됨이를 또 상상할 수가 있다 하겠다.
>
> -「심생 안세 유고에 대한 서문」(「沈生安世遺稿序」) 부분[23]

위의 인용문에서 심안세의 유고에 실린 작품들은 지독하고 고통스러운 현실적 조건에 지배받지 않고, 오히려 그것의 제약을 초월하여 저자의 격조를 보여주는 것으로 서술된다. 택당은 이러한 심안세의 작품에서 절조를 지키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저자 자체[其人]를 투시하고 있다. 택당 비평에서 자주 나타나는 '글에서…… 그 사람을 볼 수 있다/ 알 수 있다'는 명제는 이 비평문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택당이 53세이던 1636년[崇禎丙子七月之望]에 지은 글인 「연촌 최선생의 집에 전하는 시문록 뒤에 쓴 글」(烟村崔先生家傳詩文錄後敍)은 조선 초기의 문신(文臣)인 최덕지(崔德之, 1384~1455)에 관한 글이다.

> 지금 이 시문록(詩文錄)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을 두루 살펴보건대, 안평(安平)과 절재(節齋)에 대한 일은 차마 말할 수가 없지만, 가령 하동(河東)이나 고령(高靈) 범옹(泛翁)이나 사가(四佳)같은 제공(諸公)으로 말하면 훈명(勳名)은 비록 성대해도 정절(情節)의 측면에서는 혹 부족한 점이 있고, 성근보(成謹甫) 등 제인(諸人)으로 말하면 자정(自靖)한 점은 있지만 규족(葵足)처럼 보호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니 선생의 맑은 복과 완전한 명성에 비교해 본다면, 어떻다고 해야 하겠는가.

---

23) "(…)其詞旨出於困厄, 而略無憤傲詼嘲不平之氣, 淸迥宛轉, 有楚《騷》浮游八極之意, 又可想見其人矣." 李植,「沈生安世遺稿序」,『澤堂集』卷9, 한국문집총간 88, 민족문화추진회, 1992, 143쪽; 李植, 이상현 역,『국역 택당집』II, 민족문화추진회, 1996, 140쪽.

아, 이 문집을 살펴보노라면, 그 시문들을 통해 선생의 심지(心志)가 어떠했는지를 알게 될 뿐만이 아니요, 세태(世態)를 논한 것이나 기인(其人 단종을 가리킴)을 향한 정성이 또한 선생을 능가할 수 없다는 것을 감지하게 될 것이다.

-「연촌 최선생의 집에 전하는 시문록 뒤에 쓴 글」(烟村崔先生家傳詩文錄後敍) 부분[24]

택당은 위의 글 전반에 걸쳐 최덕지의 순일(純一)한 성품에 대해서 두루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최덕지는 단종 폐위 이전에 우연히 벼슬자리에서 물러남으로써, 정치적인 화를 면할 수 있었다. 반면 연촌의 시문록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 중 안평대군(安平大君), 절재(節齋) 김종서(金宗瑞, 1383~1453), 하동부원군(河東府院君) 정인지(鄭麟趾, 1396~1478), 고령부원군(高靈府院君) 신숙주(申叔舟, 1417~1475), 사가(四佳) 서거정(徐居正, 1420~1488) 등의 인물들은 비록 정치적인 공훈(功勳)으로는 이름을 떨쳤을지 몰라도, 군주에 대한 절의(節義) 면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한다. 택당은 절의(節義)은 지켰으되 몸을 보전하지는 못했던 근보(謹甫) 성삼문(成三問, 1418~1456)에게도 역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논한다. 요컨대 택당은 연촌의 시를 통해, 연촌의 내면과 시 작품에 간직되어 있었던 청절(淸節)과 군주(단종)에 대한 성실한 마음을 읽어내고 고평하고 있다.

만일 문학을 하는 인간의 인격(윤리) 문제에 대한 택당의 논의가 저자의 인격성에 대한 평어를 제출하는 데에 그쳤다면, 택당 비평의 윤리학적 성격은 절반만 성취되었을 것이다. 택당 문학비평의 핵심은 택당이 저자와 작품에 대해 성실하고 객관적인 논의를 시도하고 나서, 본인의 비평을 '불필요한 군더더기'와 같은 것으로 여긴다는 점이다. 택당은 비평가로서 자신의 비평을 겸허하게 반성하는 참된 '수신(修身)의 비평'을 구현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택당 비평의 서명(autograph)과도 같은 겸사(謙辭)가 전반적으로 잘 드러나 있는 작품이 바로「김학봉『해사록』발문」(金鶴峯海槎錄跋)이다.

---

24) "今就是卷, 閱其人物, 則安平、節齋之事不可言也, 若河東、高靈、泛翁、四佳諸公, 勳名雖盛, 而情節或歉. 成謹甫諸人, 自靖則有之, 而葵足莫衛. 其視先生淸福完名當何如也? 噫! 觀斯集者, 不但据其詩文, 知先生之所存, 論其世, 尙其人, 亦可以見先生之不可及矣." 李植,「烟村崔先生家傳詩文錄後敍」,『澤堂集』卷9, 한국문집총간 88, 민족문화추진회, 1992, 155쪽; 李植, 이상현 역,『국역택당집』II, 민족문화추진회, 1996, 184쪽.

세상에서 학봉(鶴峯) 김공(金公)에 대해서는 강직하고 충의(忠義)로운 절조를 지녔다고 일컫고 있고, 그가 사신으로 일본에 갔을 때의 그 혁혁한 명성이 더욱 잘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내가 어려서부터 그 이야기를 귀동냥으로 얻어듣고서는 마음속으로 흠모해 왔다.

그런데 이번에 공의 후손들이 그 ≪해사록≫ 사본(寫本)을 가지고 간행해서 유포시킬 계획을 세워 놓고는, 김 이부 효중(金吏部孝仲)씨가 나를 찾아와서 내가 외람되게 사신(詞臣)의 자리에 있다는 이유로 나에게 발문(跋文)을 써 달라고 부탁하였는데, 내 생각에 이것은 스스로 감당할 만한 일이 못 된다고 여겨졌다.

생각건대, 공은 학문상으로 연원(淵源)이 있을 뿐만 아니라 경서에 통효(通曉)하고 고사(古事)를 두루 살펴 이를 행업(行業)으로 실천하여 드러내신 분이니, 공에게 있어서는 문장 따위야 그저 여흥(餘興) 정도로밖에는 보이지 않았을 텐데, 나와 같은 자가 또 어떻게 감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그 뒤에다 쓸데없이 덧붙일 수가 있겠는가.

비록 그렇긴 하지만 어떤 사람의 시를 읊고 글을 읽을 때에는 저자인 그 사람에 대해서 알지 않으면 안 될 것이요, 그 사람을 알려고 한다면 그가 처했던 시대 상황을 또한 알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이 《해사록》에 근거해서 당시의 사변(事變)을 거슬러 올라가 살펴볼 때에, 어찌 개연(慨然)한 심정으로 추론(追論)할 것이 없다고야 하겠는가. (밑줄은 인용자)

- 「김학봉『해사록』발문」(金鶴峯海槎錄跋) 부분[25]

학봉 김성일은 이황의 문하에서 수학하고 동인의 분당(分黨) 때에 남인학맥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이다. 한국사에 관한 담론에서 김성일은 임진왜란의 조짐을 통신사행 당시 미리 간파하지 못한 '실패자'에 가깝게 재현된다.

그러나 택당의 비평에서 학봉은 충의(忠義)를 가지고 국가와 공직에 복무한 인물로서 신선하게 평가된다. 택당은 비평대상의 정치적 공과(功過)를 따지는 대신, 자신이 타인의 문집에 대해 비평을 할 수 있는 존재인가를 겸손하게 문제삼는다. 그는 비평(서발류 산문)을 청탁받을 때, 그 일을 자신이 맡을 만한 능력과 자격이 없음을 전제하고 글을 시작한다. 그래서 택당 비평은 위

25) "世稱鶴峯金公有剛直忠義之節, 而其使日本聲烈尤著, 植自少時已耳熟而心艷之. 玆者公之諸孫將以其≪槎錄≫抄本入梓行布, 而金吏部孝仲氏以植叨忝詞臣屬以題跋, 則非其任也. 惟公學有淵源, 通經稽古以措之行業, 其於文章固視爲餘事, 如植者又安敢以危言而駢拇其後也? 雖然, 誦其詩讀其書, 不可不知其人, 欲知其人, 不可不論其世. 今据是編遡求當時事變, 寧無慨然尙論者乎?" 李植, 「金鶴峯海槎錄跋」, 『澤堂集』 別集 卷5, 한국문집총간 88, 민족문화추진회, 1992, 344쪽; 李植, 이상현 역, 『국역 택당집』 Ⅳ, 민족문화추진회, 1997, 235~236쪽.

와 같이 비평 청탁에 대한 겸손한 사양의 문구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택당 비평은 비평가 본인이 어렵게 맡은 비평-임무가 결국 사소하고 변변찮은 것에 불과한 것이었음을 고백하는 문구로 끝맺음 된다.

> 공이야말로 이른바 "한 나라가 한 사람으로 인하여 중하게 되고, 한 사람이 한 마디 말로 인하여 중하게 된다."고 하는 말에 해당되는 분임을 이를 통해서 더욱 확인할 수 있다 하겠다. 아, 군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정도(正道)를 지켜 나가면서 오직 의리(義理)에만 따를 뿐 이익은 도모하지 않는 법이다. 이 어찌 용렬한 사람들이 천박한 식견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계교(計較)하여 감히 엿볼 수가 있는 것이겠는가.
>
> 이 ≪해사록≫에 나오는 시문(詩文)을 보건대, 사기(詞氣)가 준열하고 의론이 명백하기만 하여 이를 읽어 나가노라면 자신도 모르게 외경심(畏敬心)을 느끼게 되니, 이 책을 통해서도 공이 어떤 분인지를 상상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이 책이 우리 동방에 전해지면 마땅히 백세(百世)토록 사신들의 일대 공안(公案)이 될 것이니, 선유(先儒)의 이른바 "그 말씀이 있게 되자 그 이치가 훤하게 밝아졌다.[有是言則是理明]"는 말이 여기에도 해당된다고 하겠다. 그러고 보면 그야말로 경세(經世)의 글이라고 해야 할 것인데, 또 어떻게 눈 먼 사람의 군더더기 말을 기다릴 필요가 있겠는가. (밑줄은 인용자)
>
> -「김학봉『해사록』발문」 부분[26]

택당은 비평가로서 저자의 인격과 저자의 문학적 성취를 가능한 한 존중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그것은 계층, 곤액(困厄), 당목 등 외부적인 조건들을 초월하는 윤리적인 비평 태도이다. 택당은 문학과 작품의 인격적 일치 문제를 고려하며 성실한 비평을 한 후, 비평이 결국 "눈 먼 사람의 군더더기 말"[瞽說之贅]에 불과하다는 겸사를 덧붙인다. 어째서 눈 먼 사람인가? 택당은 여기서 비평가 자신의 안목 없음, 그리고 비평의 한계를 비유하고 있다. 또, '군더더기'로 번역한 글자 '贅'에는 '혹'이라는 의미도 있다. 눈 먼 사람이 혹까지 붙이고 있는 장면을 떠올려 보면, 비평가의 난국이 쉽게 상상된다.

택당 이식의 문학비평은 이처럼 인간의 윤리적 기품과 아름다움을 저자의

---

26) "公所謂'一國以一人重, 一人以一言重者', 至是益信. 噫! 君子大居正, 正其誼不謀其利. 此豈庸人淺識, 一時計較之所能測哉? 觀於是編詩若文, 詞氣峻整, 議論明白, 讀之凜凜, 可以想見其人. 傳之東國, 當爲使臣百代公案, 先儒所謂: '有是言則是理明'者, 斯爲經世之文也, 又何待瞽說之贅哉?" 李植,「金鶴峯海槎錄跋」,『澤堂集』別集 卷5, 한국문집총간 88, 민족문화추진회, 1992, 344쪽; 李植, 이상현 역,『국역 택당집』Ⅳ, 민족문화추진회, 1997, 237~～238쪽.

작품에서 발견하고, 동시에 비평의 한계를 스스로 돌아보는 이중의 윤리의식을 통해 보기 드문 개성과 의미를 획득한다 하겠다.

Ⅳ. 맺음말

본고에서는 '조선 중기 한문사대가'로서 호명되어 문학사적인 거장으로 인식되는 택당 이식의 실제 비평 작품들을 구체적으로 읽고 택당 이식 문학 비평의 개성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찬주두시택풍당비해』, 『대가의선비평』, 『한서수평』 등 동아시아 고전문학사에 초점이 맞추어진 택당 이식의 여타 비평 작품 대신, 택당이 조선 문인들의 시문집에 부친 서발류 산문들을 대상으로 삼았다. 그럼으로써 한국 고전문학 비평이 동아시아 고전문학사 담론과 분명히 결부되면서도, 어떻게 자국문학사의 역사적 특수성과 개성을 확보하는가를 살펴보는 계기를 가지고자 하였다.

또, 서발류 산문들이 관습적인 투식에 기대어 창작되기 쉽다는 태생적인 한계는 역설적이게도 비평가의 일관된 문학론을 살피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현대의 문학비평에서도 서문과 해설(발문) 형태의 비평이 대체로 주도적인 형식이라는 점에서, 작가론이자 작품집 해설로서의 서발류 산문은 고전문학사와 현대문학사를 가로질러 연속성을 가지는 중요한 비평 장르라고 본다.

택당 이식의 비평에 대한 기존의 주요 논의에서와 달리, 택당 이식은 진한고문과 당송고문을 대립적으로 인식하기보다는 동아시아 경학(經學)과 문학사의 맥락 속에서 총체적으로 추구해야 할 문학적 흐름들로 간주했음을 알 수 있었다. 택당 이식의 비평관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특정한 시대나 사조를 일방적으로 추수하면서 그것을 경직된 교의로 삼는 것이 아니었다. 문학사의 다양한 경향들을 적극적으로 탐구하면서 각각의 장점을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더 중요한 화두였다. 계곡 장유와 같은 또 다른 한문사대가는 그가 경학과 문학을 조화롭게, 총체적으로 실현했다는 점에서 택당에게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봉 이수광과 같이 택당 이식과 당목이 다르다고 논의되는 저자 역시 문학사

의 총체적 구현이라는 화두가 성취되었기에, 택당 문학비평에서 마찬가지로 높이 평가되었다. 그리고 택당은 숙부인 동악 이안눌에 대해 비평하면서 백사 이항복, 창주 차운로, 구원 이춘원 등 자국문학사의 문인들이 남긴 비교문학적 평을 편집하여 제시함으로써 동아시아 고전문학사와 자국문학사의 능동적인 대화를 꾀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문학사적 문제의식, 경학과 문학의 조화로운 통합은 저자 일반이 모두 균일하게 추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다. 택당은 여항시인인 유희경의 시를 통해 시학(詩學)의 학문적 추구 이전에, 시와 성정(性情), 즉 문학과 저자의 인격이 일치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임을 논한다. 택당 이식 문학비평의 가장 개성적인 표현들은 바로 문학을 통해 그 문학을 창작한 저자의 인격을 통찰해 낼 때에 나타난다. 이것을 우리는 유교적 문학관의 '도문일치'를 더 밀고나간 형태라고 간주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문학과 인격의 상관관계를 저자의 측면에서만 논의하는 데에 그쳤다면 택당 이식의 문학비평은 그 개성을 십분 발휘할 수 없었을 것이다. 택당 이식은 본인이 비평이라는 책무를 감당할 수 없는 부족한 존재이며, 자신의 비평이 자율적인 작품에 붙은 군더더기 말과 같다는 겸손한 인식을 보인다. 비평가로서의 택당이 지닌 이러한 겸허한 자기반성적 의식이야말로, 문학비평에서 가장 성취하기 어려운 영역이며 택당 문학비평의 가장 빛나는 개성일 것이다.

논 문 투 고 일 2018년 10월 15일
논 문 심 사 일 2018년 10월 17일
논문심사완료일 2018년 11월 13일

참고문헌

李植,『澤堂集』, 한국문집총간 88, 민족문화추진회, 1992.

___,『澤堂遺稿全集』五,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13.

___, 이상현 역,『국역 택당집』Ⅱ, 민족문화추진회, 1996.

___, 이상현 역,『국역 택당집』Ⅳ, 민족문화추진회, 1997.

강명관,「택당 이식 산문비평의 재검토」,『한문학보』제8집, 우리한문학회, 2003, 161쪽.

권진옥,「택당 이식의 서발류・증서류 산문 일고」,『한자한문연구』제5집, 고려대학교 한자한문연구소, 2009, 223~252쪽.

金得臣,『終南叢志』, 洪萬鍾 編,『詩話叢林』冬, 아세아문화사 영인본, 1973, 357~386쪽.

김대중,「전환기의 지식인 택당 이식과『澤堂遺稿全集』」,『澤堂遺稿全集』一,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13, 7~40쪽.

_____,「조선중기 지성사 연구의 새로운 방향 모색을 위하여 -『澤堂遺稿刊餘』해제」,『澤堂遺稿刊餘』一,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14, 7~39쪽.

_____,「택당 이식의 명청 교체기 자타인식」,『서강인문논총』제45집,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6, 151~193쪽.

김덕수,「택당 이식의 한시 비평 양상 -『설정시집』소재 시비평을 중심으로」,『한국한시연구』제9집, 한국한시학회, 2001, 236~257쪽.

_____,「택당 이식의 한시론과『澤風堂批解』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7, 94~209쪽.

_____,「『大家意選批評』 연구」,『정신문화연구』 제33권 3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10, 203~228쪽.

김우정,「택당 이식과 17세기 초 문단」,『동방한문학』제46집, 동방한문학회, 2011, 119~142쪽.

김현주,「택당 이식의 시 연구」, 단국대학교 한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11, 12~13쪽.

안대회,『한국 한시의 분석과 시각』,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0, 314~349쪽.

오세현,「규장각 소장『澤堂集』의 간행과 다양한 이본 연구」,『규장각』제44집,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14, 157~189쪽.

윤지훈,「택당 이식의『大家意選批評』과 산문창작의 실제」,『한문학논집』제29집, 근역한문학회, 2009, 99~131쪽.

이한우,「택당 이식 문학 연구」, 대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1996, 4~154쪽.

장원철, 「택당 이식의 문학론 재고」, 『어문논총』 제29집, 안암어문학회, 1990, 157~173쪽.
허윤진, 「백곡 김득신 시 비평 연구」, 『한국시가문화연구』 제42집, 한국시가문화학회, 2018, 244~246쪽.

Abstract

Taekdang Yi Sik's Literary Criticism

Hur, Yoon-Jin

Taekdang Yi Sik has been referred to as an outstanding official-literatus and also as one of the Four Masters of Sino-Korean literature of the mid-Chosun period. This essay investigates the originality of his literary criticism, based on close reading of his critical essays. For this purpose, I focus on the thirty-four pieces of his literary criticism, which are prefaces and postfaces dedicated to other authors' volumes.

It has been said that Yi's literary criticism appreciates mainly classical literature of the Tang and Song dynasties. However, his literary criticism should be defined as the criticism that raises a question on what classical literature is *in facto* and integrates different trends and theories of literary history. His standard of evaluation is whether an author's literature is based both on Confucian classical studies and on East-Asian classical literature. In terms of this objective criterion, he transcends the controversial arguments of his contemporary literary cliques, the different stances of political parties, and the demarcation between East-Asian classical literature and national literature.

In addition, the literary criticism of Taekdang Yi Sik takes on the characteristics of ethical criticism, which represents the personality both of author and of literary critic. Yi emphasizes the unity of work of art and its author. And, from the depth of criticism, he also expresses rhetorically the humble reflection on the critic himself, who is reading other people's precious works.

Key Word : Taekdang Yi Sik, *The Selected Works of Taekdang*(『澤堂集』), *The*

Complete Works of Taekdang(『澤堂遺稿全集』), prefaces and postfaces(序跋類), history of East-Asian classical literature, ethical criticism